

치과기공사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이덕혜 · 김창희¹ · 이선미²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 ¹충청대학교 치위생과 · ²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The influence of the retirement expecta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in the dental technicians

Duck-Hye Lee · Chang-Hee Kim¹ · Sun-Mi Lee²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ongnam Health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g Cheong University ·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n-Mi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50 Cheoncheon-ro 74-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440-714, Korea, Tel : +82-31-249-6505, Fax : +82-31-249-6500, E-mail : lsm712002@dongnam.ac.kr
Received: 8 April 2015; Revised: 24 April 2015; Accepted: 26 Ma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retirement expectation on retirement preparation in the dental technicians.

Methods: The subjects were 231 dental technicians in Seoul.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from July 1, 2014 to September 30, 2014. The study instrument was adapted from Bae and Je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2 questions including 6 question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questions of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20 questions of retirement expectation, and 14 questions of retirement preparation measured by Likert 5 scale.

Results: Single, younger aged, and highly educated female tended to have the expectation for the new start of career. The expectation for the rest was higher in single than in the marri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retirement expectation were marital status. Those who were single chose the retirement. Those who had long career preferred the new start.

Conclusions: The preparation for the retirement is very important in one's life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crete method and plan for the dental technicians in the future.

Key Words: dental technicians, expectation to retirement, preparation to retirement

색인: 은퇴기대, 은퇴준비, 치과기공사

서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한 개인 자산관리의 어려움, 지속적인 자녀

교육비 증가 문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전통적인 유대 관계 약화 등은 은퇴와 관련된 사회적 불안감을 점점 고조시키고 있다).

은퇴는 생활주기 단계 중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며 동시에 역할 전환의 과정이다. 은퇴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등 개인적인 변인과 은퇴 후 소득준비도와 은퇴생활준비도 등 은퇴준비요인 등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다.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또 은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은퇴 전 근무나 생활에서 은퇴 불안감과 생활만족 수준이 달라질

▶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Copyright©2015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것이고, 이들 요인들이 결국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²⁾.

구체적으로 은퇴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³⁾.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은퇴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소득금액과 은퇴자금의 적정성 및 충분성이나 은퇴계획이나 은퇴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⁶⁾. 그러나 치과기공사의 은퇴 관련 논문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가 등록된 치과기공사는 28,000명으로 모든 면허 소지자가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에 비해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쾌적하지 못한 작업환경과 기공작업의 자동화로 인하여 이직과 조기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기공사들이 은퇴 이전에 은퇴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는지를 살펴 본 후 은퇴 후 삶에 대한 설계 및 활동 가능하면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231명을 임의 표본 추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3부를 제외하고 228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배와 전⁷⁾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설문문항은 총 42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6문항, 개인적 변인 2문항(건강상태, 자존감), 은퇴기대 20문항, 은퇴준비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적 변인(건강상태와 자존감), 은퇴기대와 은퇴준비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는 건강하고, 자존감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은퇴기대 중 강요된 좌절(6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좌절의 시기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새로운 출발(6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식으로의 전환(5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

고, 계속기대(3문항)는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삶이 계속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기대에 대한 신뢰도는 강요된 좌절 Cronbach's $\alpha=0.912$, 새로운 출발 Cronbach's $\alpha=0.896$, 휴식으로의 전환 Cronbach's $\alpha=0.678$, 계속 기대 Cronbach's $\alpha=0.710$ 이었다.

은퇴준비는 신체적 준비(5문항), 심리적 준비(3문항), 경제적 준비(6문항)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준비를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은퇴준비에 대한 신뢰도는 신체적 준비 Cronbach's $\alpha=0.705$, 심리적 준비 Cronbach's $\alpha=0.610$, 경제적 준비 Cronbach's $\alpha=0.848$ 이었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 및 은퇴준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고,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은퇴기대와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72.8%로 여자 27.2%보다 높았으며, 연령분포는 40대가 34.5%로 가장 높았고, 20대 24.3%, 30대 23.0%, 50대 이상 18.1%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가 68.2%로 가장 높았고, 기타 12.6%, 학사 10.8%, 석사 5.8%, 박사 2.7% 순이었으며, 근무경력 은 21년 이상이 30.0%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 24.4%, 5-10년 이하 20.7%, 15-20년 이하 13.4%, 11-15년 이하 11.5%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 66.4%, 미혼 33.6%로 기혼이 많았으며, 수입은 201-300만원 이하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501만원 이상 22.6%, 200만원 이하 21.5%, 301-400만원 이하 21.0%, 401-500만원 이하 10.2% 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은퇴기대의 4가지 요인인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 기대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Gender	Male	166(72.8)
	Female	62(27.2)
	Total	228(100.0)
Age	20-29	55(24.3)
	30-39	52(23.0)
	40-49	78(34.5)
	≥ 50	41(18.1)
	Total	226(100.0)
Educational level	College	152(68.2)
	University	24(10.8)
	Master's	13(5.8)
	Doctor's	6(2.7)
	Others	28(12.6)
	Total	223(100.0)
Working period	≤ 5	53(24.4)
	6-10	45(20.7)
	11-15	25(11.5)
	15-20	29(13.4)
	≥ 21	65(30.0)
	Total	217(100.0)
Marital status	Married	148(66.4)
	Single	75(33.6)
	Total	223(100.0)
Monthly income	≤ 200	40(21.5)
	201-300	46(24.7)
	301-400	39(21.0)
	401-500	19(10.2)
	≥ 501	42(22.6)
	Total	186(100.0)

^{*}Missing values excluded

강요된 좌절 기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없었으나 남자가 2.16점으로 여자 2.07점보다는 약간 높았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2.26점, 20대가 1.91점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결혼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여자가 3.61점으로 남자 3.2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연령은 20대가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3.17점으로 가장 낮아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은 박사가 3.80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학사가 3.3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무경력 5년 이하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11-15년 이하가 3.0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 3.23점보다 미혼이 3.60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여자인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으로의 전환 기대는 결혼여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 2.48점보다 미혼이 2.85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계속 기대에 있어서는 연령, 근무경력, 결혼여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40대가 3.11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6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무경력 15-20년 이하가 3.03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이하가 2.5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2.97점으로 미혼 2.60점보다 높았다. 즉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계속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은퇴기대는 성별에 있어 여자가 2.83점으로 남자 2.7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은퇴준비의 3가지 요인인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신체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과 학력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8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석사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2.82점으로

Table 2. Differences by factors of retirement expec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Forced frustration	New start	Change to rest	Continuity expectation	Retirement expect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2.16±0.82	3.25±0.88	2.59±0.74	2.81±0.83	2.70±0.40
	Female	2.07±0.78	3.61±0.81	2.67±0.77	2.98±0.77	2.83±0.30
	t(p-value [*])	0.713(0.477)	-2.775(0.006)	-0.738(0.461)	-1.389(0.166)	-2.317(0.021)
Age	20-29	1.91±0.71	3.64±0.79 ^a	2.76±0.77	2.61±0.82 ^a	2.73±0.33
	30-39	2.14±0.89	3.37±0.88 ^{ab}	2.54±0.72	2.75±0.77 ^a	2.70±0.36
	40-49	2.20±0.86	3.25±0.86 ^{ab}	2.54±0.75	3.11±0.79 ^b	2.78±0.34
	≥50	2.26±0.69	3.17±0.97 ^b	2.61±0.77	2.80±0.79 ^a	2.71±0.52
	F(p-value [*])	1.984(0.117)	2.919(0.035)	1.022(0.384)	4.798(0.003)	0.497(0.685)
Educational level	College	2.11±.80	3.36±.86 ^{ab}	2.60±.75	2.84±.78	2.73±.35
	University	2.00±.71	3.59±.73 ^b	2.73±.57	3.12±.65	2.86±.28
	Master's	1.97±.82	3.67±.73 ^b	2.53±.83	2.92±.97	2.77±.40
	Doctor's	2.47±.54	3.80±.74 ^b	2.80±.71	2.72±.87	2.95±.56
	Others	2.34±.91	2.89±.99 ^a	2.52±.79	2.75±1.00	2.62±.50
	t(p-value [*])	1.050(0.382)	3.360(0.011)	0.391(0.815)	0.836(0.503)	1.763(0.137)
Working period	≤5	1.89±0.72	3.67±0.81 ^b	2.76±0.73	2.56±0.77 ^a	2.72±0.32
	6-10	2.23±0.86	3.28±0.78 ^{ab}	2.55±0.84	2.88±0.83 ^{ab}	2.74±0.37
	11-15	2.37±1.14	3.08±.1.11 ^a	2.71±0.69	2.98±0.71 ^b	2.78±0.32
	15-20	2.12±0.77	3.29±0.60 ^{ab}	2.35±0.67	3.03±0.71 ^b	2.70±0.27
	≥21	2.18±0.71	3.24±0.96 ^a	2.59±0.72	3.00±0.84 ^b	2.75±0.46
	F(p-value [*])	1.868(0.117)	2.750(0.029)	1.616(0.171)	2.833(0.026)	0.224(0.925)
Marital status	Married	2.14±0.80	3.23±0.87	2.48±0.74	2.97±0.82	2.70±0.40
	Single	2.08±0.79	3.60±0.84	2.85±0.70	2.60±0.74	2.78±0.33
	t(p-value [*])	0.524(0.601)	-3.086(0.002)	-3.590(<0.001)	3.308(.001)	-1.455(0.147)
Monthly income	≤200	1.95±0.62	3.68±0.67	2.77±0.76	2.70±0.78	2.77±0.34
	201-300	2.25±1.10	3.24±0.96	2.52±0.83	2.87±0.79	2.72±0.39
	301-400	2.24±0.79	3.19±0.91	2.60±0.64	3.02±0.85	2.76±0.31
	401-500	2.45±0.60	3.21±0.52	2.45±0.64	2.77±0.58	2.72±0.13
	≥501	1.94±0.72	3.38±1.00	2.58±0.83	3.03±0.88	2.73±0.48
	F(p-value [*])	2.147(0.077)	2.056(0.088)	0.829(0.508)	1.287(0.277)	0.164(0.956)

*by t-test or one-way ANOVA

^{a,b}same symbol represents group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가장 낮았다. 즉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도 연령과 학력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이 3.44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9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석사가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박사가 3.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50대 이상과 석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심리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결혼여부와 수입으로 결혼여부가 기혼인 경우 2.94점으로 미혼 2.7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입은 501만원 이상이 3.0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300만원 이하가 2.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기혼인 경우와 수입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은퇴준비는 연령에 있어 50대 이상이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9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석사가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2.93점으로 가장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기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Table 4>에서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기대를 9.1%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F=2.965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여부(b=-0.206)로 미혼인 경우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개인적 특성 변인을 추가한 은퇴기대와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기대를 9.4%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F=2.612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여부(b=-0.208)로 미혼인 경우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by factors of retirement prepar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physical preparation	psychological preparation	economic preparation	retirement prepar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3.05±0.83	3.19±0.70	2.88±0.75	3.04±0.58
	Female	3.28±0.73	3.31±0.59	2.78±0.77	3.12±0.51
	t(p-value*)	-1.873(0.062)	-1.129(0.260)	0.924(0.357)	-0.917(0.360)
Age	20-29	2.87±0.71 ^a	3.32±0.59 ^b	2.73±0.75	2.97±0.51 ^a
	30-39	3.08±0.89 ^{ab}	2.96±0.69 ^a	2.75±0.77	2.93±0.59 ^a
	40-49	3.17±0.76 ^{ab}	3.22±0.64 ^b	2.91±0.78	3.10±0.55 ^{ab}
	≥50	3.39±0.85 ^b	3.44±0.71 ^b	3.05±0.68	3.29±0.59 ^b
	F(p-value*)	3.398(0.019)	4.714(0.003)	1.843(0.140)	3.859(0.010)
Educational level	College	3.10±0.77 ^{ab}	3.16±0.64 ^{ab}	2.88±0.70	3.05±0.54 ^a
	University	3.13±0.82 ^{ab}	3.18±0.58 ^b	2.73±0.79	3.01±0.53 ^a
	Master's	3.67±0.77 ^b	3.76±0.39 ^b	3.24±0.78	3.56±0.45 ^b
	Doctor's	3.30±0.90 ^{ab}	3.11±0.93 ^b	3.08±1.12	3.16±0.89 ^{ab}
	Others	2.82±0.89 ^a	3.33±0.85 ^a	2.64±0.86	2.93±0.66 ^a
	t(p-value*)	2.591(0.038)	2.705(0.031)	1.720(0.147)	3.013(0.019)
Working period	≤5	2.87±0.69	3.30±0.56	2.70±0.78	2.96±0.50
	6-10	3.11±0.85	3.11±0.67	2.85±0.73	3.02±0.59
	11-15	3.07±0.97	2.97±0.88	2.62±0.91	2.89±0.73
	15-20	3.28±0.64	3.24±0.56	2.97±0.64	3.16±0.41
	≥21	3.22±0.84	3.28±0.71	2.98±0.72	3.16±0.57
	F(p-value*)	1.787(0.133)	1.450(0.219)	1.788(0.132)	1.805(0.129)
Marital status	Married	3.16±0.81	3.24±0.68	2.94±0.72	3.11±0.57
	Single	3.00±0.80	3.22±0.66	2.70±0.81	2.98±0.56
	t(p-value*)	1.361(0.175)	0.220(0.826)	2.163(0.032)	1.684(0.094)
Monthly income	≤200	3.01±0.67	3.31±0.56	2.75±0.73 ^{ab}	3.02±0.47
	201-300	3.13±0.94	3.02±0.67	2.57±0.82 ^a	2.91±0.61
	301-400	3.11±0.85	3.18±0.84	2.87±0.88 ^{ab}	3.05±0.69
	401-500	3.21±0.86	3.19±0.65	2.93±0.49 ^{ab}	3.11±0.60
	≥501	3.08±0.80	3.38±0.72	3.06±0.68 ^b	3.17±0.55
	F(p-value*)	0.223(0.925)	1.751(0.141)	2.459(0.047)	1.196(0.314)

*by t-test or one-way ANOVA

^{a,b}same symbol represents group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able 4. Factor influencing retirement expectation

	β_1	β_2
Gender	-0.089	-0.091
Age	0.260	0.246
Educational level	-0.059	-0.057
Working period	0.114	0.113
Marital status	-0.206*	-0.208*
Monthly income	-0.156	-0.138
Health status		0.015
Self-esteem		-0.062
R ²	0.091	0.094
	F=2.965*	F=2.612*

*p<0.05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t $\alpha=0.05$ reference; sex : male=1 female=1, marital status : married=1 single=0, academic background : doctorate=1, bachelor=0

5.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Table 5>에서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준비를 9.6%로 설명하고 있었으나 F=1.774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개인적 특성 변인을 추가한 은퇴준비와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준비를 14.3%로 설명하고 있었고 F=2.595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존감(b=0.186)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변인에 은퇴기대와 관련된 요인을 추가한 은퇴준비와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이들 독립변수들이 은퇴준비를 25.0%로 설명하고 있었고 F=3.594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b=0.400)이, 은퇴기대 관련 요인 중 새로운 출발(b=0.341)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

Table 5. Factor influencing retirement preparation

	β_1	β_2	β_3
Gender	-0.140	-0.146	-0.098
Age	0.337	0.354	0.400*
Educational level	0.062	0.072	0.063
Working period	-0.146	-0.127	-0.148
Marital status	-0.084	-0.098	-0.089
Monthly income	0.110	0.055	0.088
Health status		0.084	0.060
Self-esteem		0.186*	0.123
Forced frustration			-0.033
New start			0.341*
Change to rest			-0.063
Continuity expectation			0.031
R ²	0.096	0.143	0.250
	F=1.774	F=2.595*	F=3.594*

*p<0.05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t $\alpha=0.05$ reference; sex : male=1 female=1, marital status : married=1 single=0, academic background : doctorate=1, bachelor=0

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출발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은퇴과정은 비합리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라는 사건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사회·심리적 문제⁸⁾와 연장된 수명에 맞지 않는 은퇴제도와 잉여시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여가문제⁹⁾ 등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은퇴는 50, 60대뿐만 아니라 취업의 문에 들어선 20, 30대까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에서의 은퇴문제는 모든 인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은퇴자가 성공적으로 노후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개인이 갖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에 의해서 각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¹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은퇴에 대한 기대와 은퇴준비 현황을 파악하여 은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은퇴기대에 대한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기대, 은퇴기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새로운 출발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¹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배¹²⁾와 이¹³⁾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에서 일치하였으며, 김¹⁴⁾과 조¹⁵⁾의 연구에서는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기대에서 결과가 일치하였다. 이 결과로 여성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속에서 은퇴는 두 가지 역할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주부라는 직업군을 선택함으로써 좀 더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기대함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강요된 좌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에서는 20대에서 계속기대, 은퇴기대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과 계속기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¹²⁾의 연구에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기대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김¹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50대 이상에 은퇴라는 개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치과기공사의 특성상 직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명예퇴직에 의해서 높게 나타났고, 20대에서는 아직 젊고 새로운 일의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은퇴는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으면서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며, 계속기대가 40대에서 높은 이유는 은퇴 이후에 변화가 많지 않고 치과기공소 개설 등의 은퇴 이전의 삶과 같이 연속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박사가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은퇴기대가 가장 높았고 계속기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새로운 출발에서의 배¹²⁾와 조¹⁵⁾의 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고 홍¹¹⁾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은퇴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은퇴기를 삶의 연장선으로 기대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것으로 예측함으로써¹⁶⁾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적어서 삶이 안정적인 것이라는 기대로 사료된다. 그러나 은퇴 자체는 현대사회에서 일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학력이 높아서 일에 대한 한정적인 선택에 의해 업무에 대한 지속성에는 두려움을 가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근무경력으로는 5년 이하에서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높았고, 11-15년 이하에서는 강요된 좌절, 은퇴기대가 가장 높았고, 15-20년 이하에서는 계속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 계속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연령에 따른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5년 이하의 집단은 경력이 짧고 직업에 대한 혼돈과 정립이 서지 않는 시기이므로 휴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쉬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5-20년 정도에서는 치과기공소의 개설이나 치과기공소에서의 업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삶이 지속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에서 강요된 좌절, 계속기대가 높게 나타났고 미혼에서는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출발, 계속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홍¹¹⁾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혼인 경우 가족의 생계나 책임감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과 휴식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기혼의 경우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은퇴를 강요된 좌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는 지속되기를 원하는 기대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로 요인을 알아보았다. 요인별로는 신체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에서는 연령,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준비에서는 결혼여부와 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신체적, 심리적 준비에서 높게 나타나서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고¹⁷⁾, 노년기에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심각한 질병에 더 많이 걸리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은퇴와 동시에 과부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⁸⁾. 따라서 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체적 준비를 잘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에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배⁹⁾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은퇴에 대한 다른 연령층보다는 고민이 많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은퇴를 위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여가 생활과 인간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사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감은 사회적

역할 상실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에 완충역할을 한다고 밝혔다²⁰⁾. 따라서 은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에 대하여 준비를 잘 한다고 생각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석사 집단에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좀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여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좀 더 많은 사회 생활이나 취미생활로 심리적인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제적으로도 미래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재무지식과 관리능력이 높아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여가생활 등의 준비를 잘 하고 있고 경제적 준비에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미혼자보다는 가정에서의 안정과 다양한 취미생활과 대인관계로 인해서 은퇴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 수입이 많은 집단일수록 직업에 대한 안정감이 높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가, 운동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기대를 회귀분석한 결과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여부에서 미혼이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과 자기 자신의 관리만을 필요로 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적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은퇴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김과 이²⁰⁾의 연구와 배와 전⁷⁾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였고 이것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긍정성이 은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은퇴준비의 영향요인 중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출발의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은퇴 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과 이²⁰⁾의 연구, 배와 전⁷⁾의 연구, 서²¹⁾의 연구, 김¹⁴⁾의 연구에서 맥락을 같이 하였다. 노년기에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은퇴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집단일수록 은퇴에 대한 사회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의 심리적 안정감과 노후를 위한 재테크 같은 경제적 준비, 이러한 활동은 위한 신체적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에서 노년기는 100세 시대에서 인생

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함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치과기공사에게 은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겪게 되는 현실이므로 이 현실을 잘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별 은퇴기대와 은퇴준비를 알아본 결과 일반적 특성별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은퇴기대에 따라서 은퇴준비 경향도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은퇴를 준비할 때 은퇴 이후의 삶을 전망하고 설계하는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의 일반적 특성별 은퇴기대와 은퇴준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과기공사의 은퇴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대상이 일부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체 치과기공사를 대표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도 치과기공사가 은퇴를 기대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은퇴 전에 어느 준비가 추후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서 치과기공사의 개인에 맞는 맞춤형 은퇴계획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기공사들이 은퇴 이전에 은퇴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는지를 살펴본 후 은퇴 후 삶에 대한 설계 및 활동 가능하면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경기)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22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은퇴기대의 각 요인별 차이를 보면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는 여자인 경우, 학력은 높을수록, 연령과 근무경력은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으로의 전환 기대는 미혼인 경우가 높았고, 계속 기대는 연령과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은퇴준비의 각 요인별 차이를 보면 신체적 준비는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준비는 50대 이상과 석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적 준비는 기혼인 경우와 수입이 501만원 이상인 경우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여부로 미혼인 경우 은퇴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새로운 출발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경우 은퇴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은퇴준비에 대한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 치과기공사의 개인에 맞는 맞춤형 은퇴계획 방안을 마련할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Jeong WY, Baek EY. Causal effects on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s retirement and retirement preparation. J.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9; 25(2): 115-39.
2. Kim KC. Factors affecting on teacher's resocialization after retirement[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Univ. of Hanseo, 2013.
3. Kwon MI.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retirement decision of the elderly in Korea[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1996.
4. Park CG.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J Korean of Social Welfare 2008; 60(3): 257-97.
5. Lee SY. A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e-retirement planning of pre-retiri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J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2011; 15(3): 145-76.
6. Yuh YK, Joung SH, Moon SJ.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007; 10(3): 129-55.
7. Bae MJ, Jeon KY. The effect of variable on attitudes and preparations toward retirement.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4; 42(7): 89-102.
8. Bae MJ. The effect of retirement expectation on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7; 25(1): 145-58.
9. Kang HS. A study on middle-aged and aged person's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preparing retirement[Master's thesis]. Chuncheon: Univ. of Hallym, 2002.
10. Maddox GL.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970; 10(Spring); 14-8.
11. Hong HJ.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expectations and resocialization of the professional dancers[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Sejong, 2009.
12. Bae MJ. The effect of retirement expectation on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7; 25(1): 145-58.
13. Lee JU. A study on the dimensions and determinant factors of teacher's retirement expectation, and relationship with pre-retirement education[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 of Korea, 2002.

14. Kim HE. The effect of the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people and the expectations of retirement on the preparation of retirement[Master's thesis]. Daegu: Univ. of Daegu Haany, 2011.
15. Cho SH.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expectations and resocialization on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2010.
16. Wacita S, Fitzsimmons VS, Liao TF. Wealth: Determinants of savings net worth and housing net worth of pre-retired households. *J Family and Economic Issues* 2000; 21(4): 387-418.
17. Schulz JH.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social security privation: What risk to women?. *J Cross-Cultural Gerontology* 1999; 14(1): 25-42.
18. Hanson K & Wapner S. Transition to retirement: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94; 39(3): 189-207.
19. Bae MJ. The effect of individual, psychological and job-related variables on retirement expectations and preparations[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 of Kyungpook National, 2005.
20. Kim KC, Lee SY. Factors affecting on teacher's resocialization after retirement. *J Korean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2; 26(3): 557-85.
21. Shu KH. Propositions of preparatory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prospective retirees prior to retirement[Master's thesis]. Gyeongsan: Univ. of Daegu, 1995.